

프로젝트 사전조사 및 초기단계

5작교_11월보고

라 온 아 띠 2 2 기

팀원 김민진
김주연
김채연
민예은
이지연

목차

1.

11월 활동보고

- 11/4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1
- 11/11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2
- 11/19 고양-베트남 라온아띠 교류
- 11/25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3

2.

활동평가 & 소감 및 피드백

3.

12월 계획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1

2022.11.04

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제작 프로그램 첫주를 맞이했다. 양말목으로 냅비받침 만들기를 진행하며, 어르신들께서는 각자 2-3개의 냅비받침을 만들고 추가로 집으로 재료를 가져가셨다.

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2

2022.11.11

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제작 프로그램 둘째 주를 맞이했다. 어르신들께서 직접 챙겨오신 보자기로 가방을 만들고, 양말목으로 편백나무 안마봉을 제작하였다. 빼빼로 데이를 맞아 완성된 보자기 가방에 참깨스틱을 넣어드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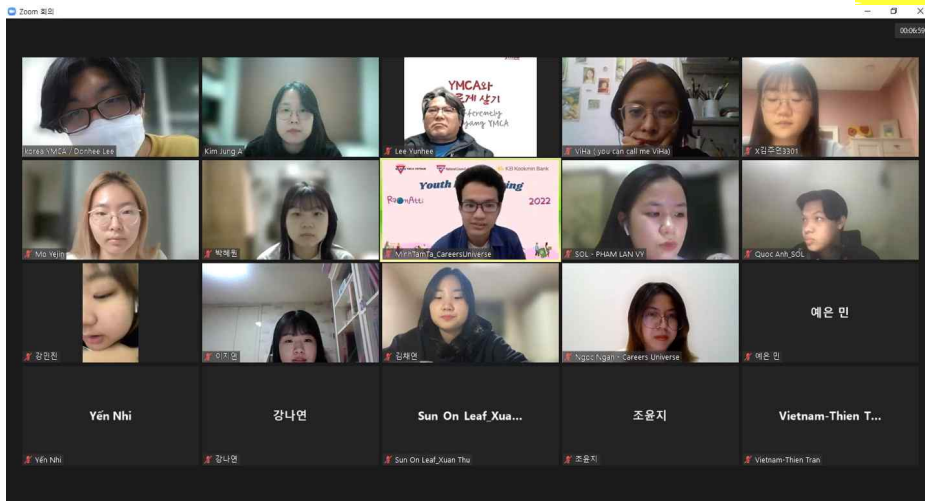


활동 3

고양-베트남 온라인 교류

2022.11.19

베트남 라온아띠 단원들과 서로의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을 가졌다. 베트남 단원들이 준비한 언어 교류 프로그램을 하면서, 상대 국가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.

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3

2022.11.25

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제작 프로그램 마지막 주를 맞이했다. 지역아동센터에 선물할 옷걸이 거울장식과 양말목 연필꽂이를 만들었다.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었다.



활동평가

4회차라는 시간이 좀 단기간이지 않았나 싶다.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신 노인 분들도 아쉬워하셨다. 만약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였다면, 지속적인 환경 보호 뿐만 아니라 세대간 교류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~~

강민진

1업사이클링과 노인 사회참여 두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된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.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, 버려진 물건을 더 많이 소재로 사용하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.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쓰레기들이 나왔다. 이러한 쓰레기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웠다.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싶다

김주연

업사이클링 과정에서 쓰레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던 점이 아쉬웠다. 프로젝트 진행 전에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고민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다.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노인분들도 즐거워하셨고 업사이클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.

김채연

좀 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을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모두가 처음해보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. 또한 업사이클링 수업을 한다고 또 다른 쓰레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. 그러나, 처음에 목표하였던 업사이클링과 노인 분들의 사회참여에는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.

민예은

프로그램의 80%정도를 마무리하면서 뿌듯함과 성취를 느꼈다. 어르신들께서 예상보다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다. 하지만, 경제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재료의 낭비라는 한계점이 존재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.

이지연

11월을 마무리하며...

면접 당시 말했던 '세대교류'를 실천할 수 있었다.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잘 따라와주셨고, 회차가 거듭될수록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너무 좋은 활동이 된 것 같다

- 강민진 -

11월은 우리의 큰 프로젝트 하나가 완성되는 한 달이었다. 4주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잊지 못할 한달임은 분명했다. 너무나도 좋으신 할머니들 사이에서 내가 힐링되는 기분이었다. 나도 나중에 더 어른이 되어서 이런 품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. 이 소감을 계기로 한번 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.

- 김주연 -

11월을 마무리하며..

11월에는 우리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인 노인분들과의 업사이클링을 진행했다. 하기 전에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한번 하고 나니 걱정했던 게 무색할만큼 재미있었다.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노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즐거워하셔서 감사했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다.

-김채연-

11월에는 복지관에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. 업사이클링 제품도 이번에 처음 만들어보았고, 노인분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도 되었다. 같은 팀 친구들과 재품을 미리 만나 만들어보고,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고민해보면서 4주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. 첫 주의 수업이 끝난 후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할머니 분들께 매우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, 만족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매우 뿌듯하였다.

-민예은-

11월을 마무리하며..

어르신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마무리 시간에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동적이고 뿌듯함을 느꼈다. 어린 학생들처럼 느껴지셨을텐데 4주간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팀원들이 다같이 힘내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었다.

12월에 남은 지역아동센터 활동을 잘 마무리해서 라온아띠 22기 5작교 팀의 프로젝트가 멋있게 마무리되길 바란다.

-이지연-

12월 계획

01

찾아가는 눈높이
업사이클링 교육

02

마무리



찾아가는 눈높이
업사이클링 교육

12/29

마무리

감사합니다